

11/3(수) 욱기 묵상 15

욱기 8:1-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기 8장은 욱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변론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수아로 추정됩니다. 창 25장에 따르면 수아와 그의 형제들은 아라비아 페트라이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빌닷에 대한 변론은 세 번째 걸쳐 나오는데 욱기 8장, 18장 그리고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욱기 8장의 빌닷의 변론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A. 1-7절, 하나님의 심판; B. 8-10절, 조상에게 배우라; C. 11-15절,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 B'. 16-19절, 덧없는 삶에서 배우라; A'. 20-22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조상에게 배우라

빌닷은 욱의 변론을 듣고 발끈하여 엘리바스 다음으로 욱과의 변론을 시작합니다(8:1-2,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변호합니다(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빌닷은 욱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4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이 2절에서 표현한 “거센 바람”은 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던 큰 바람을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닷은 거침없이 욱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제시하는 조언은 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5-6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욱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지만 욱의 입장에서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에 대해 변론한 빌닷은 이제는 조상들 즉 전통과 역사에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이 이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은 욱의 생각보다 이미 한 평생을 살았던 조상들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월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이 과거의 역사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거와 전통이 모두 다 옳지 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도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학문은 과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라

빌닷은 이제 욱에게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서 언급된 ‘왕골(파피루스)이나 갈대’는 적합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 그들이 잘 자라는 환경이 바로 ‘진펄과 물’이 적절하게 공급되는 곳입니다(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빌닷의 의도는 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삶이 피폐해지고, 식물과 같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연약한 거미줄을 의지하는 자라고 비유합니다. 이는 허무하게 끊어지는 인생으로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이제라도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빌닷은 돌무더기에 뿌리 내린 식물에 대한 비유를 언급하게 됩니다(16-17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이 식물이 비록 무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 뿌리가 바위 위에 있어서 한순간에 뽑히게 되면 그 나무에 대한 흔적이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빌닷이 욥의 고난을 염두해두고 이런 비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빌닷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은 뿌리가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축복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욥에게 남아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의 이전 말씀대로 욥의 나중이 심히 창대하겠지만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빌닷의 조언은 사실 욥기 7장에서 욥이 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욥 6: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빌닷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욥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빌닷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 욥을 위로하기는 커녕 정죄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빌닷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지식을 자랑하며 변호한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서도 불편한 변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빌닷의 변호를 받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변론이 부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보다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 생활을 하기 보다는 영적 지도자나 영적 멘토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절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얀마를 위한 기도:** 군부의 구테타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위해 중보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무기 시장을 성장시키고 동남아시아 지역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미얀마의 군부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러시아가 미얀마군에 대한 무기 수출 조치를 중지하고, 미얀마 군정부가 무력에 의한 통치를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오렌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Hamden High School 를 위해서 중보합니다.